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 보통 사람들의 예술, 말을 걸다

**일시** 5월 20일(월) 17:00-18:30  
**장소** 서울 남산국악당  
**내용**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개막을 선포하는 자리로, 국내외 연사의 강연과 다양한 축하공연 통해 주간행사의 주제와 의미 공유

시간	구분	내용
16:00 ~ 17:00	참가자 확인 및 티켓 발권	
16:30 ~ 17:00	사전 퍼포먼스	극단 연미
17:00 ~ 17:05(05)	개막 퍼포먼스	극단 연미 예술꽃씨앗학교 어린이
17:05 ~ 17:08(03)	개막 영상	
17:08 ~ 17:15(07)	축하 공연 1	예술강사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편"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학생·강사
17:15 ~ 17:20(05)	축사	유진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7:20 ~ 17:23(03)	주간 홍보 영상	
17:23 ~ 17:43(20)	강연 1	Ernst Wagner(유네스코 석좌교수) 주제 : Diversity of Approaches to Arts Education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법
17:43 ~ 18:03(20)	강연 2	김영하(소설가) 주제 :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삶
18:03 ~ 18:18(15)	축하 공연 2	노래는 빛이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I Have A Dream 인제남초등학교(예술꽃씨앗학교) 아카펠라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인제남초등학교(예술꽃씨앗학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
18:18 ~ 18:20(02)	개막 선언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18:20 ~ 18:30(10)	환송 및 기념 촬영	

[www.arteweek.kr](http://www.arteweek.kr)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보통 사람들의 예술,  
말을 걸다



주간 홈페이지



아르떼 페이스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강연 소개

### Diversity of Approaches to Arts Education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법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문화요소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법과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초청연사 | Ernst Wagner \_ 유네스코 석좌교수

에른스트 바그너 박사는 뮌헨 미술 대학(Academy of Fine Arts Munich)에서 미술, 역사,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예술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UNESCO 독일위원회의 문화이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뮌헨에 위치한 학교평가교육연구원(Institute for School Quality and Research in Education)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에어랑겐 뉘른베르그 대학(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산하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석좌기관(UNESCO-Chair in Arts and Culture in Education)에서 강사 및 책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술교육관련 UNESCO 석좌기관, UNESCO 옵서버 기관 및 협력 대학들과 함께 INRAE(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를 출범하였습니다.

###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삶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제도를 거쳐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예술가로서의 본성은 억누르고 제도에 순응하는 학생·노동자·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게 되고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엿한 생활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어린 예술가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웅크리고 억눌린 우리의 예술가적 자아는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의문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 초청연사 | 김영하 \_ 소설가

소설가 김영하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문단에 등단하여 <퀴즈쇼>, <오빠가 돌아왔다>, <빛의 제국>, <검은 꽃> 등을 비롯하여 최근 발표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까지 데뷔 이래 현대적 감수성의 표현이란 문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옥수수와 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고, <김영하의 책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이라는 주제의 TED 영상은 한국인 최초로 TED 메인으로 소개되어 조회 수 15만뷰 이상을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 함께 하신 분 소개

### 난타

####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_ 원장 | 홍부희

돈보스코 직업훈련원은 "바람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을 핵심가치로 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사회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돈보스코 직업훈련원의 남학생들과 예술강사로 구성된 팀이 하나가 되어 난타공연을 펼칩니다. 2004년부터 사회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영 강사는 2012년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학생들과 국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동안 쌓은 실력을 발산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참여강사 박지영 김선정 박윤미  
참여학생 김현빈 박성진 박세희 김태민 김기동 김승수 이정길 이재형 최진우  
문호진 정중현 김동운

### 합창

#### 예술꽃씨앗학교 \_ 교장 | 오일주

예술꽃씨앗학교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학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2008년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의지가 높은 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6개 학교가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된 강원도 인제남초등학교는 전교생 29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로 공연예술교육(음악극)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술꽃씨앗학교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승모 교사와 20명의 학생들이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아카펠라를 선보입니다.

참여학생 김다현 김버리 김경희 이채연 이도한 조아령 유동근 박준홍 윤원기  
김승수 김지섭 이승균 심영웅 전예정 유승미 김다현 엄채영 염현희  
신은정 전은빈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_ 단장 | 원학연

1964년 창단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입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창작곡 발표 및 동요, 클래식 합창곡들을 연주하여 어린이 합창음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술단체로서 음악을 통해 서울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공연에는 인제남초등학교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한국씩 합창하고, 인제남초등학교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합창합니다.

### 사전공연

#### 극단 연미 \_ 대표 | 이성권

사전퍼포먼스의 극단 연미(連美)는 "우리의 삶에 없어선 안 되는 주식인 쌀을 잇달아 가져"라는 운영목표를 갖고 창단된 젊은 극단입니다. 이 극단에서는 연극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연미'라고 일컬어지는 연극(미)을 보급하고 그들의 삶속에 예술이 스며들게 해, 삶과 예술의 공존을 이루고자 합니다.

#### 예술꽃씨앗학교 어린이

예술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제남초등학교의 최유림 학생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를 동시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리플렛

판형 300×230

접지 3단접지

